

# 광주여대, 인성시민교육대상 교육부장관상

## 코로나19 이후 심리 지원 등 호평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사진 왼쪽)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대상에서 단체부분 최우수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대상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적 인성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 기관·단체 및 학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는 상이다.

심사에서 광주여대는 지식전달 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양하고 체화(體化)에 기초한 실천하는 인성시민 배출, 인성시민교육 활동관리 환류, 지속·체계적인 인성시민교육, 코로나 19 이후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와 공존 공감하며 성장에 참여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실현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광주여대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MAUM 교육 선도대학으로서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여대는 2015년 MAUM교육원을 설치하여



교과 및 비교과 운영,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연구 및 교원연수, 기관 연계, 지역사회 확산 등에서 성과를 이뤘다. 특성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매년 유아, 초등, 중등,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인성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교사 대상 연수 시행, 광주시교육청 평생

학습관 마음챙김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 대상 직무연수 등 다방면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인성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해 지역과 함께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며 MAUM교육 선도대학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교회총연합 새 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

개신교회 연합 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신임 대표회장에 이영훈(사진) 목사가 선임됐다.

한교총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총회에서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 총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공동 대표회장에는 권순웅·장중현·송홍도 목사가 선임됐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 교회가 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 통일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는 교회, 저출산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사학법 개정 문제, 기후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바르게 대처하는

# 해양에너지, 소외 이웃에 '사랑의 김치' 나눔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이운영) 임직원들은 지난 9일 광주시 남구 제석근로사업장에서 이웃과 나눔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후원금 1000만원을 남구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해양에너지 임직원이 매달 급여 일부를 모금한 '민미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해양에너지 제공>

# 남구가정어린이집연합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광주시남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9일 남구 서남비전센터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갖고 아동의 권리와 복리증진으로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

이날 총회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이 축하영상을 보냈고 황경아 남구의회의장과 노소영(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마정숙 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과 지역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배희정 광주시남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사회변



화에 생기가 솟는 모습에 새희망의 불꽃을 불수 있었다"며 "2023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보육환경속에서도 돌파구를 모색

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헤쳐나가자, 오늘은 힘들었던 일 고생했던 일 함께 나누며 서로 다독이며 다시금 힘찬 도약을 약속하는 소중한 자리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광주보훈청,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행사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은 최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故(고) 변상규님의 유족(배우자)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 광주광역시지부장 김오례 님 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공작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100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커튼콜(재)	15 헬로키키 공학교실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보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남도 지오그래피(재) 30 KBS광주 열린마당			00 뉴스브리핑
3	35 고양이 목에 마이크달GO 55 UHD 승터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몽계공향(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50 통합뉴스룸 ET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헛바닥 종합 격투기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공작지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커튼콜	00 안정환의 히든 카타르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속	00 치열업
11	30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10 통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2	10 UHD 환경스페셜 2(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말괄량이 삤삤
07:15 출동! 슈퍼스타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인간과 바다
08:00 똥덩당 유치원	13:50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들레길	<알수록 놀라운, 베트남 남부 -수상한, 메콩델타>
08:35 그린조끼 구조대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포맷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코 골이 시러울 땀, 통영>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패파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35 타타와 쿠마	16:25 그린조끼 구조대(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6:40 똥덩당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2일 (음 11월 19일 壬辰)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핵심 사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48년생 소소한 것은 처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하라. 60년생 불만하기는 하나 흥사는 없고 병길할 뿐이다. 72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84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96년생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하자. 행운의 숫자 : 07, 63</p> <p><b>丑</b></p> <p>37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9년생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 철저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61년생 책무를 다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73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다. 85년생 번거로운 일이 대단할 것이다. 97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48, 73</p> <p><b>寅</b></p> <p>38년생 예조에 마음먹었던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50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62년생 생 본의 아니게 타의 영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74년생 의도는 좋으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86년생 조심으로써 대단한 이득을 볼 수 있다. 98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 행운의 숫자 : 25, 87</p> <p><b>卯</b></p> <p>39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다. 51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취월장하리라. 63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다 헤쳐 나갈 수 있다. 75년생 새싹이 찬 서리를 만나는 이치이니라. 87년생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로다. 99년생 판도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4, 50</p> <p><b>辰</b></p> <p>40년생 기존의 것을 교체하게 되는 판국이다. 52년생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밀물처럼 밀려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다. 76년생 이렇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88년생 목욕히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00년생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할 난처한 입장이다. 행운의 숫자 : 23, 54</p> <p><b>巳</b></p> <p>41년생 세부적으로 이해하면 무탈 하리라. 53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하고야 말 것이다. 65년생 주저하다가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77년생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망설이지 말라. 89년생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씩 할 필요는 없다. 01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36, 85</p>	<p><b>午</b></p> <p>42년생 중차대한 일이므로 세밀히 따져 봐야 한다. 54년생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 터지는 대국이다. 66년생 숙련으로 인한 진척으로 인해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78년생 불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02년생 행하면 능히 감당하리라. 행운의 숫자 : 40, 76</p> <p><b>未</b></p> <p>43년생 행운이 깃들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55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67년생 구비 요건부터 갖춰 놓고 불일이다. 79년생 판도가 갑자기 변해 버릴 수도 있다. 91년생 치밀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루리라. 03년생 목전에서 앞어진 수레를 보는 것에 비유할 만하니 앞서서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43, 65</p> <p><b>申</b></p> <p>44년생 난관은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56년생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68년생 평온하게 진행될 것이니 우려할 바는 아니다. 80년생 과실이 줄렁줄렁 열려 있으니 풍요로울 것이다. 92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04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9, 97</p> <p><b>酉</b></p> <p>33년생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면책할 만 것이다. 45년생 중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특별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57년생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리라. 69년생 대세로써 자리 잡았으니 강구하더라도 쉽지 않은 앎이 있다. 81년생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93년생 결과의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행운의 숫자 : 46, 90</p> <p><b>戌</b></p> <p>34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잠자고 있는 것이 백번 낫다. 46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니라. 58년생 마음만 먹으면 흥도 복도 바꿀 수 있으니라. 70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판세로다. 82년생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니 민첩해야겠다. 94년생 외형적인 판단은 핵심을 놓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58</p> <p><b>亥</b></p> <p>35년생 곧 알게 될 것이니 마음을 억누르고 조금만 기다려라. 47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렵다. 59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71년생 뒤돌아 보려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 83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95년생 발전의 물꼬를 트는 길사가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08, 71</p>
--	--